

최진철호, 2002월드컵 향기가 난다



21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기니와 한국과의 경기에서 후반 오세훈(오른쪽)이 이승우와 교체되고 있다.



U-17 월드컵 조별리그 B조 기니와의 2차전에서, 골을 성공시킨 오세훈(왼쪽)이 동료 박명수와 열싸인하며 기뻐하고 있다. 한국은 오세훈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 16강에 진출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U-17 월드컵, 기니 1-0 꺾고 2연승 16강 진출

‘신의 한 수’ 후반 45분 투입 오세훈 1분만에 결승골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니와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18일 브라질을 1-0으로 물리친 한국은

두 경기 연속 1-0 승리를 거둬 24일 잉글랜드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B조에서는 브라질이 1승1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고 잉글랜드와 기니는 나란히 1무1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다. 한국은 0-0 무승부 기운이 감돌던 후반 47분에 오세훈(울산현대)이 유주안(대전고)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안에서

원발 강슛으로 상대 골문을 흔들며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이승우(FC바르셀로나)와 유주안을 최전방 투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박상혁(매탄고), 김진아(대전고), 중원에는 김정민(금호고), 장재원(현대고)을 선발로 내보냈다. 수비는 왼쪽부터 박병수(대전고), 이상민(현대고), 이승모(포항제철고), 윤종규(신갈고)를 배치했고 골키퍼는 안준수(의정부FC)가 선발로 나왔다. 전반 5분 한국은 수비수 윤종규가 상대 선수와 공을 경합하다가 페널티지역 안에서 넘어지면서 공에 손을 갖다대는 위험한

장면이 나오는 등 초반 주도권을 기니에 내줬다. 그러나 전반 6분 페널티지역에서 나온 이승우의 절묘한 패스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한국은 전반 11분 이승우의 과감한 돌파와 15분 역시 이승우의 위협적인 프리킥 등이 나오면서 조금씩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1985년 이 대회 4강에 들었던 기니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나비 방구라의 슛을 박명수가 몸으로 막아내고 42분에는 야모두 투레의 땅볼 스투패스가 우리 문전 앞을 스쳐 지나가는 등 기니의 공세가 거세졌다. 기니는 후반 시작 후 4분 만에 코너킥을 세 번

이나 얻는 등 한국을 몰아세웠다. 후반 18분 한국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기니의 골문을 위협했다. 이승우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마음먹고 때린 중거리슛을 기니 골키퍼 무사 카마라가 쳐냈고 이것을 달려들던 박명수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그러나 박명수의 원발슛은 카마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이후 후반 25분 이승우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며 기니 골문을 위협했고 35분에는 김정민의 슛이 상대 수비수를 맞는 등 공세를 주도했다. 최진철 감독의 교체카드가 또 적중했다. 전·후반 90분이 다 지날 무렵 최진철 감독

은 이승우를 빼고 오세훈을 교체 투입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유주안이 오세훈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오세훈은 원발 강슛으로 이날 경기의 유일한 골을 만들어냈다. 유주안이 공을 잡기 전에는 상대 수비수가 중심을 잃고 주춤하는 행운도 따랐다. 한국은 이 골로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 8강 이후 6년 만에 이 대회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011년과 2013년 대회에는 본선에 나가지 못했다. 한국은 24일 잉글랜드와 경기에서 비기지만 해도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지더라도 브라질-기니전 결과에 따라 조 1위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 축구 대표 스타 또 나왔다

‘최진철호 막내’ 금호고 김정민 시야넓고 패싱 정확 ‘리틀 기성용’

광주 축구를 대표할 또 다른 스타가 탄생했다. ‘최진철호의 막내’ 미드필더 김정민(금호고 1년)이 U-17 월드컵 16강행의 중심에 섰다. 21일 기니전에서 정확한 패싱을 앞세워 대담하게 또 차분하게 경기를 조율해나간 김정민은 1999년 11월 13일생 대표팀의 막내다. 그러나 막내답지 않게 경기를 풀어나고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1-0 승리를 만들었다. 김정민은 서울 신천중 재학생이던 지난해 AFC U-16 챔피언십 일본전에서 이승우(바르셀로나)의 골을 도운 필성부른 떡잎이다. 그리고 1년, 이번에는 금호고의 김정민으로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다. 환철한 외모와 체격, 시원한 중거리 슈팅,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등 금호고 선배인 기성용을 연상시키며 ‘리틀 기성용’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중학교 최고의 대어가 광주 FC 유소년 팀인 금호고의 선수가 된 배경에는 ‘기성용’이 있다. 기성용의 아버지가 유소년 시절 광주 FC의 기영욱 단장이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동한 ‘유스팀 프로젝트’의 첫 수확물이 바로 김정민이다. 금호고와 광양제철고에서 고종수, 윤정환, 김태영, 김영광 등을 길러낸 기 단장은 일찍부터 김정민을 눈여겨보며 영입에 공을 들였다.



기 단장은 “공을 차는 것을 보면 여유가 있었다. 그만큼 시야가 넓다는 것이다. 여유있게 공을 가지고 있고 게임 메이커로 결정적인 패스를 하는 등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 스피드, 유연성, 부드러운 움직임도 갖추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열약한 시민 구단의 유소년 클럽으로의 영입은 쉽지 않았지만 금호고의 전통과 기성용의 노하우로 김정민의 영입에 성공했다. 기 단장은 “금호고에서 윤정환, 고종수, 남기일 등 좋은 미드필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세계 무대로 나가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성용이 매니저를 소개해주는 등 성장을 돕겠다 싶었다”며 “신체적인 조건, 축구하는 스타일이 성용이와 흡사하다. 나도 또

다른 아들을 얻은 느낌이다. 좋은 활약을 해주어서 뿌듯하다”고 웃었다. 지난 4월 기 단장은 취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민이라는 선수를 주목하라고’ 했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민은 광주 축구를 대표하는 새얼굴이 됐다. 기 단장은 “광주 FC를 떠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좋은 선수의 영입이 광주 축구 저변을 넓히는 기쁨이 된다. 광주 FC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잔류를 이루는 등 대단한 일을 해냈고, 광주대가 광주의 이름이 되고 있다. 좋은 선수들이 광주에서 뛰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광주를 알릴 수 있도록 시와 시민들의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NS 사생활 폭로·도박 스캔들에 휩싸인 프로야구

‘가을잔치’ 그라운드에 찬바람 분다

삼성, 도박 의혹 선수 한국시리즈 엔트리 제외

‘가을잔치’로 뜨거워야 할 그라운드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생활 폭로, 삼성 주축 선수들의 도박 사건 등으로 우리나라 최고 흥행 스포츠라 자부하던 프로야구가 자존심을 구겼다. 프로야구가 갈림길에 섰다. 매년 프로야구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음주 사건사고, 여성 편력 등 사생활 논란은 시기와 팀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흔한 논란’이 된지 오래. 병역비리, 약물복용, 승부조작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는 사건들도 잇을 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SNS를 통한 사생활 폭로가 이어지면서 야구팬의 감추고 싶은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KIA 윤완주는 SNS에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가 구단으로부터 3개월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한화 최진행은 약물 복용이 적발

돼 3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으며 시즌 내내 논란의 이름이 됐다. LG의 정찬원·정성훈은 음주운전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바람잡 날 없던 프로야구였다. 시즌이 끝나고도 팬들의 실망은 계속되고 있다. kt 장성우발 SNS 폭로로 다시 한번 야구 관계자와 팬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kt 장성훈도 SNS 폭로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급기야 도박 스캔들이 언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의혹의 시선이 쏠린 삼성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인 사장이 직접 나서 도박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뒤늦게 사건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박 스캔들의 파장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폭탄

이 터지면서 각 구단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사건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힌 일이 되고 논란의 당사자는 얼마 안 돼 다시 그라운드에 섰다. 이런 악순환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질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각 구단도 선수들의 사건·사고를 쉬쉬하는데에 만 급급했다. 화려한 스타들의 초라한 민낯에 팬심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프로야구 암흑기 재도래라는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 비대하게 커진 몸집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팬서비스 의식도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팬들 없는 프로야구는 없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실력을 갖춘 진짜 프로 선수가 박수를 받는,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수들 끼 말산... 팬들 성원에 보답

KIA 타이거즈 25일 ‘호랑이가족 한마당’

KIA 타이거즈가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선수단과 팬이 함께하는 ‘2015 호랑이가족 한마당’을 연다. KIA 선수단 전원이 참가해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숨겨진 끼를 발산하는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오후 1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개방형 불펜 및 덕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팬사인회 ▲ 챔피언스 필드 라빙맨 ▲시즌 영상 상영 ▲신인선수 소개 ▲레크리에이션 ▲열혈 팬 응원배틀 ▲집중탐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응원피켓 콘테스트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타이거즈 예코백’이 선물로 주어진다.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를 비롯한 우승자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증정 된다. 이날 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22일 오후 12시부터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